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 활동 보도

2013년 06월 24일  
(월요일)

강북신문 4면

##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박문수 의원, 어린이집 비리 방지위한



박문수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 171회 제1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하여 국민 누구나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부정·비리 어린이집 퇴출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문수 의원은 “안심 보육을 위해서 사전에 불미스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누구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력에 도움을 줄 것이고 예방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발의 목적을 밝혔다.

시사프리신문 4면

## 박문수 강북구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 발의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 위한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박문수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171회 제1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박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굵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관련 부정·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

라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 누구나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비리 어린이집 퇴출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박문수 의원은 “안심 보육을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사전에 불미스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국민 누구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력에 도움을 줄 것이고 강한 심리적 기제를 형성해 예방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유영일 기자